

보도일시	2026. 3. 25.(수) 16:00	배포 일시	2026. 3. 25.(수) 11:00
담당 부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경제안보팀	책임자	이상홍 팀 장 (02-731-2440)
		담당자	이서연 사무관 (02-731-2454)

방어적 경제안보를 넘어 대체불가능성을 갖춘 「전략국가 KOREA」로 나아가야

- 국민경제자문회의,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 개최 -

1. 행사 개요

-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김성식)는 3월 25일(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컨퍼런스룸에서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을 개최합니다.

* 헌법 제9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의장: 대통령)

※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1일자로 공식 출범한 이재명 정부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첫 공개행사

-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방어적인 경제안보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불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전략국가 KOREA」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투자 및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안정성과 안보 협력 기반 강화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부가 한국의 경제안보 체질 개선을 위해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핵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인허가 애로 해소,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핵심 인재 양성, 부품·소재 국산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취약점 보완을 위해 “에너지와 핵심 자원의 공급망 안정을 경제안보 전략의 축으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실제 발언은 다를 수 있으니, 현장에서 확인 후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제문 요지

- 본 세션은 좌장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진행하에 외교·통상·산업 분야의 최고 전문가 3인이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 먼저 **조병제 경남대학교 초빙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현재 국제질서가 영토 중심의 지정학과 기술·공급망 중심의 지정학이 교차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은 일시적인 위기 회복력을 넘어 구조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한 지향을 담은 「전략국가 KOREA」는 상호의존이 무기화된 국제질서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역량을 축적하여, 협상력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국가” 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특히 반도체·방산·조선·원전과 같은 한국의 핵심전략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대체불가능성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조 및 AI 전환 역량뿐만 아니라 기술표준 및 인증체계, 물류 길목의 운영 허브 등 다차원적인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미국과는 상호의존을 심화하여 우리를 배제하는 비용을 높게 하고, 중국에 대한 취약성은 관리하여 우리에게 대한 압박의 효율을 낮추는 전략적 위치에 서는 것,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와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전략적 완충의 외연을 확충하는 것” 이 우리 경제안보의 목표라고 제시했습니다.
 - 끝으로, 조 교수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경제안보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휘할 강력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의 확립과 초당적 정책지속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현 국제정세를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로 규정하고, 한국이 방어적 태세를 넘어서 주도적인 '경제책략 (Economic Statecraft)'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아울러 “각론은 있되 총론은 취약하고, 부처간 정책별 협업은 있되 칸막이로 인해 체계적 분업·조정엔 취약하다” 고 현재의 경제안보 현실을 짚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도 한국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은 하드파워(제조, 혁신, 군사) 측면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적 결절점(node)이자 소프트파워(민주주의, 문화, 디지털 역량 등) 강국이라는 경제안보의 강점을 살리고, 비패권국가라는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우리 정체성에 기반한 경제안보 전략의 출발점” 이라고 제시했습니다.

-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미국은 관세 등을 앞세운 채찍 위주 경제책략으로 국제적 규범을 훼손하고 불확실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는데, “이는 핵심 우방 간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동맹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MAGA 세력 분화 조짐과 물가 및 금융시장 불안정성 가중 등을 초래” 하고 있어 향후 지속 강도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위협요인을 기회요인으로 바꾸어나가는 발상이 필요한데, 중국의 추격과 추월을 늦추고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미 통상협상 이후의 과제로서, 비양보 핵심 국익을 명확화하고, 한국을 미국 제조업 재건의 필수 파트너로 위치시키고 기여하며, 첨단 핵심 제조 가치사슬에서 전략적 결절 국가(strategic node state)의 위상을 강화하고, 비패권국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중견국 및 글로벌 사우스와 규범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며, CPTPP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 조속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 마지막 발제자인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경제가 안보인 시대가 되어 각국 제조업의 기술 역량 자체가 글로벌 국가 간 경쟁을 판가름하는 강력한 안보 자산으로 격상되었으며, 강도 높은 대외적 위기를 오히려 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 특히 우리 산업부문은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전략산업이 무기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4대 전략산업*의 최선단(leading-edge) 생산기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므로 이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 이 센터장은 경쟁력 있는 생태계가 요구되는 새로운 경쟁환경 하에서는 1세대 앞선 경쟁력 유지(초격차)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고 진단하며, ①신뢰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의 획기적 제고, ②차세대 전략기술 선점, ③균건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린치핀*(Linchpin)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 전체 시스템의 존립 및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핵심요소를 지칭

- 끝으로 경제안보시대에 전략분야 확보전은 이미 국가 간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실기(失機)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중국을 대체하는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첨단 공급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이므로 국가 산업전략 목표에 최우선한 정책 통합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토론 요지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박종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글로벌경제안보연구센터장,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발제자들이 던진 「전략국가 KOREA」와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화두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외교·정책·기술이 통합된 입체적인 거버넌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 박종희 교수는 최근 국가 간 네트워크의 성격이 기존 협정과 같은 ‘선언적 약속’에서 기업의 해외 투자와 같은 ‘이해관계의 공유’로 전이되었다고 진단하며, 결국 상호 의존적 이해관계의 심화를 통한 이탈 비용 극대화 전략이 경제안보 정책의 핵심 원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군사안보와 경제안보의 융합 현상을 지적하며, UAE, 사우디 등 방산 협력국으로부터 석유·핵심광물을 조달하는 연계구조를 감안해 방산을 자원 외교 협상에서의 핵심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지만수 센터장은 한국이 제조·수출 강국으로서 경제안보적 위기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위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재인식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하며, 모든 위협에 선후 경중을 판단하기보다 과잉 반응으로 ‘쉽게 가스라이팅되는 나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장기적·전략적으로 한국이 원하는 위치·역할·질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위해 G7+ 표방, 경제안보형 산업정책 수립, WTO 내 공정성 논의 주도 등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 권석준 교수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파는지’에 초점을 맞춘 GDP 기반 경제안보보다 ‘우리 경제 전체가 얼마나 똑똑하게 작동하는가’에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춘 GDI* 기반 경제안보를 채택할 때라고 지적하며, 한국 기업 파운드리를 중립적인 AI 칩 제조 허브로 격상시키고 기술 역량을 갖춘 주변국들과 ‘AI 미들파워 연합’을 진취적으로 주도하는 지능 총량(GDI) 기반 新경제안보 전략의 전면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 GDI(Gross Domestic Intelligence): 한 국가가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능의 총량과 질’을 측정하는 신규 지표

※ 오늘 행사 자료집은 국민경제자문회의 홈페이지 (<https://www.neac.go.kr>)에서 행사 종료 후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행사 하이라이트 영상은 추후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국민경제자문회의-w3o)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이번 행사 취재하는 기자단에는 행사 종료 후 대외공개를 전제로 발제/토론문 자료집을 사전 배포할 예정

- ❖ 붙임 1. 주요 참여자 약력.
- 2. 행사 자료집(취재 기자단 한정).

구분	시간	내용
개회사	14:00-1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축사	14:05-1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본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전 외교통상부 장관)
	14:10-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1) 교차하는 지정학과 지정학, 「전략국가 KOREA」의 비전과 과제 - 조병제 경남대 초빙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
	14:30-1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2)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 한국 경제안보전략과 대미 통상협상 이후 과제 -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14:50-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3)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한국의 핵심경쟁력 강화 전략 및 산업정책과제 -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
	15:1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장 -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글로벌경제안보연구센터장 -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개회사**김성식**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전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
- 제18대·20대 국회의원
- 전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축사**김용범**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전 세계은행(WB) 선임 이코노미스트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좌장**윤영관**

-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전 외교통상부 장관
- 전 서울대학교 사회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
- 미국 존스홉킨스(SAIS)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발제자



조병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 전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사무총장
 - 전 국립외교원장
 - 전 주말레이시아대사
 - 전 외교부 대변인
 - 전 외교부 북미국장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발제자



김양희

-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장
 - 전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일본 도쿄대학교 경제학 박사
-

발제자



이 준

-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
 - 전 산업연구원 경영부원장
 - 재정경제부 비축전문위원회 위원
 - 산업통상부 자체사업평가위원
 - 전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
 - 미국 코넬대학교 응용경제학 박사
-

토론자



박종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클러스터장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 전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 미국 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 정치학 박사
-

토론자



지만수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장
 -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북경사무소장
 - 전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

토론자



권석준

-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장
 - 재정경제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민간위원
 -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2023년)
 - 미국 MIT 화학공학 박사
-